

설 연휴 기간 병·의원·약국 437곳 문 연다

전주시보건소, 9~12일 의료공백·진료불편 최소화 위해 비상 진료 상황실·감염병 비상대응반 운영

다가오는 설 명절 기간 전주시역 병·의원과 약국 등 437곳의 의료기관이 문을 연다.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는 설 명절 연휴인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시민들의 의료공백 및 진료불편을 최소화하고, 응급상황 발생에 즉각 대비하기 위해 병·의원·약국 등 437곳을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연휴 기간 △응급의료기

관 6곳 △병·의원 198곳 △약국 226곳 △달빛어린이병원 3곳 △지역보건 의료기관 4곳이 문을 열 예정이다.

설 연휴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 등은 전주시 누리집(www.jonju.go.kr)과 전주시보건소 누리집(health.jonju.go.kr), 완산·덕진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명절 연휴를 맞아 타지역을 방문하는 시민들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가 제공하는 '응급의료 정보 제공

앱(App)을 통해 문을 여는 전국 의료기관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 앱은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응급' 또는 '응급의료' 등으로 검색한 후 설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전주시보건소는 설 연휴 기간 비상 진료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연휴 기간 중 진료 가능 의료기관 및 당번약국에 대한 안내(063-281-6200, 063-250-3900)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동시에 응급의료기관과 문을 여는 병의원과 당번약국에 대한 운영 상황 점검도 이뤄지며 감염병 집단발생에 대비한 비상 방역 근무도 실시한다.

김신선 보건소장은 "연휴 기간 전주시민들과 전주를 찾는 귀성객 및 관광객들이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비상진료 상황실 및 감염병 비상대응반 등을 통해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5일 저소득층의 따뜻하고 풍요로운 설명절을 위해 전주시에 생필품 선물꾸러미 200박스(600만 원 상당)를 기탁했다.

“따뜻한 설 명절 보내세요”

전북은행, 설맞이 선물꾸러미 200박스 후원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5일 저소득층의 따뜻하고 풍요로운 설명절을 위해 전주시에 생필품 선물꾸러미 200박스(600만 원 상당)를 기탁했다.

선물꾸러미는 떡국떡과 김, 라면 등 10종으로 구성됐으며,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저소득 독거노인 및 저소득 취약계층 200세대에 전달될 예정이다.

오현권 전북은행 부행장은 이날 “나눔을 통해 어려운 이웃이 따뜻한 명절을 보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 앞으로도 지역밀착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주시 관계자는 “추운 겨울 설 명절을 앞두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 전북은행의 따뜻한 마음이 수혜자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도록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은행은 매년 김장김치, 방한키트, 명절 꾸러미 등 다양한 나눔활동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등 향토은행으로서 지속적으로 체계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욱기 기자

“설 연휴 실외 체육시설 사전 예약하세요”

전주시설공단, 7일까지 월드컵경기장 등 총 6개 시설 대상

전주시설공단(이사장 구대식)은 설 연휴 실외 체육시설 무료 개방을 앞두고 사전 예약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7일까지 3일간이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은 월드컵경기장과 덕진체육공원, 완산생활체육공원, 아중체육공원, 고덕생활체육공원, 슬나생활체육공원 등 6개다.

덕진체육공원은 연휴 첫날인 9일부터 이틀간 테니스장과 축구장을 무료로 개방한다. 이어 설 당일인 10일부

터 이틀간 완산생활체육공원과 아중체육공원, 고덕생활체육공원, 슬나생활체육공원을 무료로 개방한다.

이들 체육시설에서는 테니스와 정구를 비롯해 족구와 풋살, 축구 등을 즐길 수 있다.

월드컵경기장은 풋살장을 11일 하루 무료로 개방한다. 이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각 시설당 최대 2시간 이용이 가능하다. 사전 예약 후 이들 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경합 시 추첨을 진행한다.



완산생활체육공원에서 축구를 즐기는 시민들. (사진=전주시설공단 제공)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설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단은 명절을 맞아 가족과 친지, 친구와 함께 체육활동을 통해 연휴를 건

강하고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난 추석에 이어 올 설에도 연휴 기간 실외 체육시설을 무료로 개방한다.

/김욱기 기자



전주시 완산구 관내 주요 유관기관 및 단체·기업체 대표로 구성된 완산회가 5일 구청장실에서 2024년 설맞이 이웃사랑 나눔 전달식을 개최했다.

완산회, 설맞이 이웃돕기 성금 350만원 기탁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배희곤) 관내 주요 유관기관 및 단체·기업체 대표로 구성된 완산회(회장 조병두)가 5일 구청장실에서 2024년 설맞이 이웃사랑 나눔 전달식을 개최했다.

명절을 앞두고 지역 사회 곳곳에 따뜻한 온기를 전하기 위해 열린 이날 전달식은 관계 부서 직원뿐만 아니라 완산회(회장 조병두) 임원진과 회원, 그리고 관내 봉사단체 관계자들도 함

께 참석하여 그 의미를 더했다.

조병두 완산회장은 이날 전달식에서 “관내 지역의 어려운 이웃분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따뜻한 설명절을 보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번 나눔 행사를 준비하게 됐다. 앞으로도 관내에 소외된 이웃분들이 없도록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완산회가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욱기 기자



㈜대서전라북도재향사업소는 5일 덕진구청에 100만원 성금을 기탁했다.

대서전라북도재향사업소, 설맞이 성금 100만원 기탁

㈜대서전라북도재향사업소(대표 채창수)는 5일 소외된 이웃에게 전해달라며 100만원 성금을 전달했다.

이날 기부된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용될 예정이다.

㈜대서전라북도재향사업소는 덕진구에 분사를 두었으며 관공서 보안문서수거 및 파쇄, 재활용품 재생처리 사

업을 하는 회사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자 불품후원 및 봉사활동 등 사회공헌 활동을 실천하고 있는 회사이다.

채창수 대표는 “추운날씨에 소외된 이웃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후원을 준비했다”며, “우리들의 후원을 통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희망이 함께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성평등기금 지원사업 공모

전주시, 19일까지 단체 신청 접수... 올해 총 4500만원 지원

전주시가 성평등 문화를 확산시키고,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및 복지 지원 확대를 위해 성평등기금 지원사업을 전개한다.

시는 5일부터 오는 19일까지 '2024년 성평등기금 사업'을 함께 추진할 단체의 신청을 접수한다.

올해 사업비는 총 4500만 원으로, 시는 지정분야와 자유분야로 나눠 모집할 예정이다.

먼저 지정주제에 경우 △성평등 관련 실태조사 △성평등 문화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제작 △성인지 정책 모니터링 사업 등 3개 분야로 단체당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또한 자유주제는 성평등 촉진에 기여하는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단체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전주시에 소재하며 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로 1개 단체당 1개 사업만 신청할 수 있다. 단, 유사사업으로 국가나 타 지자체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단체 및 법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단체(법인)의 홍보, 위탁사업, 단체운영과 관련된 경상적 사업 등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공모사업에 대해 △시정시책과의 연계성 △사업의 공공성 및 타당성 △파급효과 및 주민수혜도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자기부담금 정도 등 선정기준에 따라 전주시 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및 지원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익자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김영 10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김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풍각

내아